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12월 31일(주일) 제1473호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A Bold Witness for Christ)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새해
선교헌금 작성, 러브소나타 효고,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

9월~2025년 1월 17일까지 작은예수 40일 새
벽기도회 등을 개최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4년 온누리교회 표어는 '그리스도의 담
대한 증인' (A Bold Witness for Christ)이다.
새해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
씀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한다.

'2023-24 송구영신 및 신년예배'

'2023-24 송구영신 및 신년예배'는 12월 31
일(일)과 1월 1일(월) 드린다. 송구영신예배는
12월 31일(일) 서빙고와 양재 오후 4시, 7시,
10시, 부천, 수원, 대전, 인천 오후 7시, 10시, 남
양주 오후 10시, 평택 오후 9시, 강동, 양지, 영
종 오후 11시에 드린다.

2024 신년예배는 서빙고와 양재 1월 1일(월)
오전 9시, 11시, 부천 오전 9시, 수원, 대전 오
전 10시, 남양주, 인천 오전 11시에 각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평택, 강동, 양지, 영종은 신
년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는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그리스도
의 담대한 증인들'을 주제로 1월 20일(토)까
지 이어진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

전 5시 30분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
당에서 진행된다. 영상 예배(유튜브, CGN
Live)로도 참여할 수 있다. 1월 2일 노회태 목
사(차세대사역본부장), 3일 이주연 목사(산마
루교회), 4일 김승수 목사(인천온누리교회), 5
일 이준호 목사(강동온누리교회), 6일 김상수
목사(대전온누리교회)가 설교할 예정이다.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은 부활절(3월 31일)
까지 진행된다. 전국 147개 교회와 55개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이다. 모금
한 헌혈증과 수술비는 연세의료원을 통해 환
아들에게 전달된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한마음혈액원 헌혈카
페를 방문하면 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
감,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2714-02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
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게재
된다. 이재훈 위임목사의 저서 <방황의 시대,

방향이 되다>를 선물로 보내준다.

2024 선교헌금작성 1월 6~7일과 13~14일

'2024년 선교헌금 작성'은 1월 6~7일과
13~14일에 한다. 온누리교회 국내 11개 캠퍼
스 모든 예배에서 선교헌금을 봉헌한다. 예배
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영상 예배 QR코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더보기란 클릭),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2024년 온누리교회는 1월 6~7일, 13~14일
선교헌금 작성, 1월 22일~24일 목회사관학교,
3월 1일 순장영성수련회, 2월 14일~3월 29일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 3월 25~29일
고난주간 십야예배, 5월 15~16일 러브소나타
'효고', 6월 19~21일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
아행전', 7월 29일~8월 2일故 하용조 목사 소
천 13주기, 9월 22일~28일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 10월 5~6일 온누리교회 창립 39주
년, 11월 23~24일 앤젤트리, 30일 임직식, 12월

온누리교회 역사 자료 수집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책자발간 편찬위
원회'에서 온누리교회 역사 자료를 수집한
다. 1985년 교회 창립부터 1993년까지 주보,
사진, 양육 자료, 행정 기록(예배 인원 보고
등), 간증집 등을 보관하고 있는 성도들은
서빙고온누리교회 행정지원실에 가져다주
거나 <온누리신문> 이메일(onnuriweekly
@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자료를 스캔
한 다음 원본 그대로 돌려준다.

문의: 02-6959-0001

차세대와 함께하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차세대들이 오는 1월 2일(화)부터 20일
(토)까지 온 가족과 함께 작은예수 40일 새
벽기도회에 참석한다. 차세대사역본부에
서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예배당 예
배에 참석하는 차세대에게 선물을 준다.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라고 인사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메시 크리스마스(Messy Christmas)’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뒤죽박죽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질투를 느낀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대학살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누이신 곳은 동물의 먹이통이었습니다. 동물의 우리에 있는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가 아이를 낳은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며, 사람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을 소개할 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잉태된다는 엄청난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눅 1:38).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담대하고, 순종적인 믿음의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거절할 수도, 회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출생이라고 하지만,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 주지 않는다면 사회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정혼자인 요셉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위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며 성탄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세 가지 놀라운 사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크리스마스에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고, 둘째,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이고, 셋째,

임마누엘

마태복음 1:18~25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순결했고, 하나님 앞에 정당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더 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세 가지 믿기 어려운 사실 때문에 요셉은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첫째, 마리아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셋째, 이 두 가지를 믿어도 왜 나와 마리아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마리아는 스스로 결백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을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더 큰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의 계시를 통해 요셉의 믿음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심으로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의롭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상황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에 ‘정혼관계’라는 독특한 문화를 이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는 신랑 신부가 실제적인 부부로 함께 살기 전에 ‘정혼’이라고 부르는 1년을 보냅니다. 이 시대의 약혼과 결혼의 중간단계입니다. <우리말성경>에서는 ‘약혼’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시대 약혼보다 훨씬 강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상태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서로 남편과 아내로 부를 수 있고,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파혼은 이혼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만일 정혼 상태에서 자녀를 가지게 되면 적법하게 태어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혼상태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잉태되게 하시고, 동시에 적법한 법적인 보호를 받는 자녀의 신분 가진 상태에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준비하신 메시아의 출생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예

수님이 언제, 어디로, 어느 민족, 어느 족속, 누구를 육신의 부모로 태어나게 하실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느 나라와 민족, 족속과 가문, 누구를 통하여 어느 때에 출생할지를 예언하는 역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역사로써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22~23절).

이 말씀은 크리스마스가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후 자라면서 메시아로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시되, 처녀가 잉태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사 7:14).

여기서 ‘친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죄악, 인간의 거부, 인간의 반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간이 구원을 갈망하지 않을지라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무엇을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함께 하시는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분리되고, 단절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나라 밖에 사는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뛰쳐나간 인간과 함께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



“그분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깊이 찬양하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며 다시 함께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인, 어떤 종교 지도자가 예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어느 한두 사람의 예언이 아니라 수천 년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과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예언만 2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것도 서로 다른 시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예언된 출생으로 오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심의 의미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인간 본성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인류는 구원자를 스스로 낳을 수 없고, 인간의 교육이나 과학 문명,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온 인류를 불행과 죽음, 타락 가운데 처하게 한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는 인류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듯 초자연적인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본성에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둘째, 동정녀 탄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처하게 된 이유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본성, 죄책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본성의 타락, 원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의로움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의 근원이 될 분이 필요합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정녀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의로우신 인성을 입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인류는 두 사람뿐입니다. 첫째 아담에 속했는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둘째 아담, 죄가 없는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동정녀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실 때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인간의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탁월함을 보여서 탁월한 종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시간과 역사,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일부가 되심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오신 날

크리스마스의 신비,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분은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불신과 반역으로 행하는 모든 이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영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안에서는 포기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안에서는 버려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안에서는 버림받은 영혼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깊이 느끼

고, 체험하는 복된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처음 왔을 때 그분께 드린 선물이 동물의 먹이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드린 선물은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깊이 찬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놀라운 축복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우리과 함께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당황스러운

엄청난 충격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높여 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인권과 정의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조례’, ‘인권보도준칙’, ‘인권보도상’, ‘인권교육’, ‘인권감수성’, ‘북한 인권’, ‘성소수자 인권’ 등 ‘인권’이라는 단어가 난무하는 세상이다. 더구나 인권(人權)은 주장하는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달라서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 것부터 국가나 특정 집단 혹은 개인에 국한되는 등 포괄하는 범위가 다양하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대전인권센터장이며 〈인권의 딜레마〉를 저술한 김영길 목사는 인권의 원천이 어디냐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천부적 인권은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혹은 수태의 순간부터 가지는 권리이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John Locke)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그 누구도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재산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천부인권설을 주장했다. 이것은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영국의 명예혁명의 결과인 권리장전과 미국 독립혁명의 정신을 반영한 연방 헌법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둘째, 보편적 인권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가가 형성됨에 따라 국가 혹은 사람들 대부분의 동의 하에서 개개인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인권이다. 학습권, 참정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비기독교적 배경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인권은 천부적 인권과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인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셋째, 상대적 인권은 특정 집단에 의해 주장되는 인권 즉 학생 인권, 여성 인권, 노동 인권, 이주자 인권, 성 소수자 인권 등을 말한다. 마르크스에 의해 19세기부터 주장되어 온 것으로 집단을 지배자·피지배자, 강자·약자의 대결 구도로 보고, 상대적으로 억압받는 약자를 지키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자본가)·프롤레타리아(노동자)를 주로 대비했지만, 20세기를 지나면서 남성·여성, 원주민·이주민을 대비하기 시작했다. 네오마키즘의 문화혁명 의제는 이성 애자·동성애자, 전통 가정·비전통 가정, 부모·자녀, 교사·학생 등 사회구성원 전체를 이분법적 대결 구도로 나누고 약자, 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에 무제한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정의로 규정하는 게 특징이다.

“성경적 정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하나의 기준 아래 공정하게 지켜지는 것이다.”

넷째, 자의적 인권은 상대적 인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성적 상대자의 선택(성적지향), 성별의 선택(성별정체성), 임신, 출산과 낙태 등 성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모든 권한(성적자기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분류와 별개로 오늘날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인권은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다’는 마르크스의 인권 개념을 가르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투쟁을 통한 인권의 발전단계를 설명한다. 1세대 인권(18~19세기)을 신체, 사상, 양심, 종교, 집회와 결사, 표현, 선거의 자유 등을 기본인권이라 하면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투쟁을 통해 획득되었다고 말한다. 2세대 인권(19~20세기)은 근로, 교육, 사회보장, 인간다운 생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며 이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획득되었다고 말한다. 3세대 인권(20세기 후반)은 자결권, 평화의 권리, 발전의 권리, 재난에서 구제받을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등 연대와 자결의 권리를 포함하고, 이 시대의 인권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카렐 바작(Karel Vasak)이 1972년 제안한 이래 학계에서 아직 수용되지 않은 이론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근거 없는 이론을 교과서에 주입해 우리 자녀들에게 편향된 인권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선언은 인권에 관한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것에 왕과 국민의 대표가 상호합의한 무혈혁명이다. 이때 작성된 권리장전은 대부분 민주국가 헌법에 인권의 기반을 제공했다. 반면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은 성경의 가르침과 무관하게 압제에 저항해서 일어난 혁명으로 왕족과 귀족 혹은 부르주아의 피로 얼룩진 혁명이었다. 자유, 평등, 박애를 기치로 내건 프랑스 혁명에 단두대가 많이 사용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인권의 정의에 의존할 때 천부적 인권은 가장 근본적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 지켜져야 할 권리이다. 보편적 인권은 사람들 대부분이 인정하는 권리가기 때문에 천부적 인권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면 상대적 인권이나 자의적 인권은 한쪽의 인권이 다른 쪽의 인권과 상충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양해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무엇보다 상대적 인권이나 자의적 인권은 국가의 질서와 부딪치며, 그 권위의 원천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한 집단에 대한 무제한의 인권 허용은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규칙을 파괴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며, 그 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고아, 과부, 나그네처럼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다. 이는 오히려 정의를 훼손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정의와 사회정의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적 정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하나의 기준 아래 공정하게 지켜지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영역주권과 일반은총

사무엘과 다윗 사이의 줄다리기



신무환 장로
(서빙고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담당)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모두 귀중한 것이다. 그런데 교회와 교회 활동은 대부분 구원의 은총인 특별은총을 큰 전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회 생활에 익숙한 성도들에게 특별은총은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이고, 당연한 은혜가 되었다. 반대로 일반은총은 신앙과 무관한 특별한 영역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하나님은 구원자 이전에 창조주로서 특별은총 뿐만 아니라 일반은총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포함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요

3:16).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태도와 관점은 ‘특별은총이 지배하는 교회’와 ‘일반은총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이원론적 구분을 야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마 6:10).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존재(all beings)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기뻐하셨다(골 1:20).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만 모여 있게 하고, 나머지 모든 세상의 영역은 그들이 접수하는 것이다.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영역 모두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영역의 조화와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하루에 그리스도인은 몇 시간 기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자신 있는 답은 두 영역에 대한 올바른 균형적 관점 없이 도저히 찾을 수 없다. 특별은총을 받아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라고 해서 일반은총의 성숙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일반은총의 영역의 성숙도

“이 시대에 과연 가정과 교회의 교육은 사무엘과 다윗 사이에서 적절한 줄다리기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가 높다고 해서 특별은총을 담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성경은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여러 번 강조한다. 특별은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은총의 영역에서는 새로운 배움과 노력의 과정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특별은총을 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권력에 복종하기를 명하신다(롬 13:1). 교회 밖 세상 속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상전에게 순종하며 그리스도에게 하듯 함을 가르친다(엡 6:5). 세상 속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가르친다(롬 13:7). 심지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히 12:14).

구약 성경의 사무엘과 다윗의 삶을 두 영역의 균형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사무엘은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 그는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의 삶을 시작한 대표적인 선지자다.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섬겼다. 여호와와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삼상 3:19). 그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 반면 다윗은 사무엘과 매우 다른 배경을 갖는다. 어려서부터 험한 목동 일을 했으며,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다. 탁월한 시적 재능으로 그 아름다운 〈시편〉을 남겼다. 악기를 잘 다루었으며, 4천 명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합창단을 만들었다(대상 23:5). 만일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지냈다면 골리앗을 물리친 돌팔매 실력과 국가를 40년 동안 다스리는 리더십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들에서 밤하늘을 보며 목동 일을 하지 않았다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볼 수 있는 위대한 〈시편〉의 시상이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사무엘과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에 따라 두 사람의 일반은총적 영역과 특별은총적 영역의 무게추가 매우 다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적지 않은 질문을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와 부모로서 지향하는 신앙적 모델이 과연 누구이며, 그 모델에 대한 두 영역 간 균형에 대한 문제다. 세속적 세계관이 일반은총의 모든 영역에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가정과 교회의 교육은 사무엘과 다윗 사이에서 적절한 줄다리기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브랜드 가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지혜 구하기



김수민 권사
(칼럼니스트,
동대문중앙공동체)

몇 달 전 대통령
이 139개 기업의
경제사절단과 함
께 중동 순방을 했
다. 그런데 코인 사
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 업체 대표
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
장을 불러일으켰
다. 이 업체는 대통

령 동행순방 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유명기업 대표들과 사우디아라비아 왕세
자도 만나기로 했으며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한다. SBS 뉴스에 따르면 실제로 이 업체의 코
인은 순방 이후 두 배가량 올랐다고 한다. 투자
자를 유치하기 위해 단골 메뉴로 오르내리는
사우디 왕자, 태국 공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처남은 아마 수백 명도 더 될 것 같다. 국가 체
제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유명인사의 이름
을 들먹거리는 이유는 그 이름이 가진 영향력,
즉 브랜드 가치(Brand Value) 때문이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누구를 안다, 누구와 친하다
는 걸 자주 내세우는 사람한테는 그 유명인사
와 자신의 위상을 동일 선상에 놓고 싶은 심리
가 숨어 있다.

예전에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 출석하는 지
인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한여름에도 예배
시간에 에어컨을 틀지 않아요. 땀이 줄줄 흘러
도 모두 참아요. 담임목사님은 소형 중고차를
타고 다니죠”라며 큰 자부심을 나타냈다. 그러
면서 본인은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대형 외제
차를 타고 집에 가서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튼
다. 유명 단체인 훌륭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
서 본인도 그 수준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
다. 출석하는 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열심인 걸
자랑하면서 정작 본인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
들을 외면하고, 교회의 일대일제자양육 체계
를 자랑하면서 본인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는 교회 방침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신분을 가리지 않고 겸손
한 자세로 소통하신 예수님께 대해서는 자주
언급하면서 정작 본인은 일터나 가정에서 부
하직원, 가족들한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다
면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께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다르듯, 예
수님을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은 다르다.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브랜드 가
치를 이용해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했던 바리
새인의 모순을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죄성
을 통해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을 차
단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믿음의 역동성을 갖
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백을
많이 가져야 한다.

명실상부, 명불허전 vs 유명무실

이름값과 실재가 같다는 뜻의 ‘명실상부(名

實相符)’는 겉과 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짐을
뜻한다. 비슷한 뜻으로 ‘명불허전(名不虛傳)’
이란 말도 있다. 중국 전국시대 때 맹상군이라
는 왕족이 있었는데,食客들을 대등하게 대우
하며 인재를 존중했다. 그의 영지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명성이
전해져 그 이름이 헛되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생긴 말이다. 예를 들어 ‘그 배우의 연
기력은 정말 명불허전이다’, ‘그 브랜드의 품
질은 명불허전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그 작가의 통찰력과 글솜씨는 명불허
전이라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선수의 실
력은 명불허전이라 많은 구단주가 구매할 것
이다’ 등 자타가 공인하는 이름값, 브랜드 가
치를 지니려면 부단한 노력을 요구한다. 그 반
대말은 ‘유명무실(有名無實)’일 것이다. 브랜
드 가치가 높아지면 기업이 가격 결정권을 갖
게 된다. 인터브랜드 선정 2023 글로벌 브랜드
가치 순위 10개 기업을 보면 1위 애플(5,027
억), 2위 마이크로소프트(3,167억), 아마존
(2,777억), 4위 구글(2,062억), 5위 삼성(914억),

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왕상 21:25).

최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이재훈 위임
목사님 설교에서 ‘우리 자신이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 하나
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대할 때 인권유린이나
차별, 폭력, 무관심, 기회의 불평등이 많이 해소
될 것이다.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장식한다고
사람까지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
로 유명인사나 부자가 아니더라도 ‘소금과 빛’
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브랜드 가치를 주변으
로부터 인정받는다면 하나님과 교회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출세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음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브랜드 가
치를 높이 다니엘과 요셉이 그러했다.

사람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숫자로 셀 수
있는 ‘가산 명사’와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
로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돈과 명예, 영향력 등
이다. 하나님의 종 다윗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자 인구조사를 명한다. 물론 통계

는 옥중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당시 빌레몬은
골로새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바울은
본인에게도 필요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
려보내며 그를 용서해줄 것을 간청한다. 하나
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영적
인 눈으로만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일이기
에 바울이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이었는지 짐
작할 수 있다. 바울은 사회적인 신분과 역량으
로 볼 때 귀족 중의 귀족이요, 금수저 중의 금
수저였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에 영의정을 하
다가 낙향해 서원에서 후진들을 가르치다가
추노꾼에게 붙잡힌 비천한 노비를 면전해주
고, 다른 양반이나 유림들에게 자신을 대하듯
그를 대해달라고 했다면 어디 제정신으로 보
았겠는가!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는 내 심복이
라(빌 1:12)”,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
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빌 1:17)”라고
표현한다. 헬라어로 심복(스플랑크논)은 심장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
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오네시모는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울의 생
명과 같이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였다. 우리에
게 이러한 용기가 있는가? 바울은 정통 유대
인, 로마 시민권자, 박사학위를 다종 소지한 석
학, 유명 교회 개척자라는 브랜드 가치보다, 예
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방
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
아들인 사도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부여했다.

〈트렌드 코리아 2024〉(김난도 저)에서 말하
는 새해 10개의 트렌드 중 하나가 호모 프롬프
트(Homo Promptus)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AI와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시대를 선
도할 필요성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 생성형 AI
는 질문을 얼마나 정교하게 하느냐에 따라 결
과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해졌다. 해외에서는 해당
엔지니어 연봉이 4억 원까지 치솟고 있다. 골
드만삭스는 전체 일자리 50%가 AI에 의해 대
체될 수 있어 3억 개 정도의 정규직 일자리가
자동화되리라 전망했다.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관련 법안을 세워 인공지능 도입의 총격
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쉬운
것이 컴퓨터에게 어렵고, 인간에게 어려운 것
이 컴퓨터에게 쉽기 때문에(모라벡의 역설:
Moravec’s Paradox) 인공지능 시대가 무조건
일 자리를 빼앗아 갈 거라는 공포심에서 벗어
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자신의 결과물을
스스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최종
적인 판단과 선택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
다. 천지창조의 전문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
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의 계절에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브랜
드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새
해를 맞이하는 변곡점을 만들어보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에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지 한번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변곡점을 만들어보자.”

6위 토요타(645억), 7위 메르세데츠 벤츠(614
억), 8위 코카콜라(580억), 9위 나이키(538억),
10위 BMW(511억)다. 애플은 브랜드 가치 선
순환 구조를 잘 만들어 11년째 1위를 고수하
고 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유튜브는 25위
(260억 달러)다. 100위 안에 든 국내기업은 삼
성을 포함해 3곳인데 현대차 32위(204억 달
러), 기아 88위(71억 달러)이고, 일본 브랜드는
7곳이 진입해 있다.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
점유율이 올라가고,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원가절
감 효과와 함께 현금 흐름의 유동성이 좋아진
다.

반전의 서사, 하나님의 시선

브랜드 가치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현재와 미래에 거둘 수 있는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이익 창출에 두고 있지만, 예수님이 사람을 보
는 브랜드 가치에는 반전의 서사가 있다. 이 땅
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실 때 기준도 그러했고,
자신을 희생해 핏값을 치르고 얻은 영혼의 가
치는 무한대이다. 브랜드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다. 소유의 무한 확장으로 자신의 브랜드 가
치를 높이려던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
앗고 살인까지 했다. 성경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 자기 자신을 팔아먹은 자들이라 기록하
고 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

학이 적용되는 분야는 많고, 숫자가 있어야 분
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걸음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취들을 자
신의 역량과 공로라 인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를 망각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출애굽〉
에서 인구·가축 조사는 번성과 풍요를 허락하
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지만,
다윗이 명령한 인구조사는 군사력과 왕권 강
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130만 명이
라는 숫자가 확인되었지만, 다윗은 선지자 갓
을 통해 자신의 교만한 동기를 깨닫고 즉시 회
개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시고, 다윗의 회개 기
도를 들으신 다음 재앙의 기간을 단축하신다.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백성들을 징벌하는 끔
찍한 광경을 목격한다. 7만 명의 생명을 거두
어 가신다. 인간적으로는 영리해 보이는 일들
이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에 속
한다.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다
윗의 브랜드 가치는 인구의 숫자나 전쟁 능력
에 있었던 게 아니다. 목동 시절부터 철저히 하
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과 즉각적인 회
개의 자세에 있었다.

동서양 모두 철저한 신분 사회 시대에 살았
던 분위기에서 〈빌레몬서〉를 통해 본 바울의
가치관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놀라운 것인가?
옥중서신인 〈빌레몬서〉에는 교회의 핍박자였
던 바울, 이방인이었던 빌레몬, 노예 신분의 도
망자 오네시모가 등장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
과 징계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있던 오네시모

2023 선교 결산

온누리 선교, 그 가슴 뜨거운 이야기!

이주민선교, 긴급구호 및 난민선교, 선교 훈련 및 파송

2023년에도 온누리 선교는 열심히 또 뜨겁게 달렸다. '선교하는 교회'라는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을 열방에 참 멋있게 드러냈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892명이 전 세계 75개국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다. 선교지에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우고, 전쟁과 재난을 당한 지구촌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고 있다. 여성과 차세대 교육에도 힘쓰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2023년 온누리 선교가 맺은 열매를 소개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현지인 사역

2000선교본부가 지난 6월 21일(수) 뜻깊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 사역을 위한 HKI(Huria Kristen Indonesia) 교단과 상호협력에 다짐하는 체결이었다. 이재훈 위임목사와 Firman Sibarani 교단장(HKI 교단)이 평신도 리더십 훈련, 목회자 교육, 복음 전도와 해외 선교, 교회 경영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온누리교회는 2021년 3월부터 현재(2023년 12월)까지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손잡고 '르완다 여성 가장 가구 극빈 상태 개선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 기초 생활자금 및 생산 자산 지원, 기술 교육 등 기초생활 기반을 지원하고, 생활력 향상 교육 및 저축·재무 관리 등 생계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있다.

긴급구호 및 난민사역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2월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했다. NGO 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 및 실행위원,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시리아 난민교회 사역자 등을 투입했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소재 시리아 난민 및 지진 피해 현지인들에게 생필품, 텐트, 보온키트, 식량패키지 등을 전달했다.

지난 9월 11(월)~17일(일)에는 이재훈 위임 목사, 한중희 본부장(TIM), TIM 사역자 등이 레바논 베이루트와 자흘레 난민지역지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난민전도집회와 TIM 개척 현지교회에서 연합수련회 및 세례식을 열었다. 앞으로 레바논 베이루트와 자흘레에 자립신앙 공동체를 구축하고, 기독교 학교 및 기숙학교도 건립할 예정이다. 이웃사랑 의료 및 의류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주민 선교

온누리M미션에서 지난 8월 6일(일) 온누리 M센터에서 '연합 세례식'을 열었다. 한국, 몽골,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등 7개 나라에서 온 성인 20명, 아동 4명, 유아 3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지난 9월 29일(금)부터 10월 1일(일)까지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2023 Harvest(하비스트)'가 막 올랐다. 몽골, 네팔, 필리핀, 미얀

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17개국에서 온 이주민 550여 명이 참석했고, 80명이 결신했다.

온누리M미션이 지난 10월 25일(수) '이주민 선교 30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포럼'을 개최했

다. '온누리교회 외국인 사역자 이야기', '온누리 융합선교', '새로운 이주민 선교 영역', '온누리 이주민 선교 현재와 미래' 등을 주제로 온누리교회 이주민 선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봤다.



선교 훈련 및 선교사 파송

두란노국제선교회(TIM)에서 올해 FA(Frontier Agency movement: 대학청년 단기선교 사역) 청년 선교사 27명을 파송했다. 지난 2월 FA 20기 청년 선교사가 12명을 레바논과 인도네시아에 파송했다. 8월에는 FA 21기 청년 선교사 15명을 레바논, 인도, 캄보디아로 파송했다. FA 선교사들은 국내 합숙 훈련과 현지사역(4개월)을 포함해서 6개월 동안 선교 훈련 및 선

교사역을 감당한다.

지난 5월 15~21일에는 대만 목회자 및 한국 선교사 34명을 초청해서 '비타민C'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이 온누리교회의 선교적 비전을 배우도록 도왔다. 이 자리에서 대만교회는 '2030년까지 2만 선교사 파송'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웠다. 이주민 공동체의 역할, 전도하는 방법, 교회를 세우는 과정 등도 교육했다.

'2024 제4차 서울 로잔대회' 개최를 한 해 앞둔 올해는 무척 분주했다. 온누리교회는 한국 로잔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로잔과 동역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금)에는 송도컨벤시아에서 '로잔대회를 위한 714 기도대성회'를 개최했다. 2024 제4차 서울 로잔대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한국 교회 영적 대각성을 도모하는 부르짖음의 장(場)이었다. 한국 교회 성도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1월 7일(화)에는 제7회 한국글로벌선교리더십모임(KGMLF, Korean Global Mission Leaders Forum)이 열렸다. '소망의 복음: 환경재해와 인적재난에 대한 선교적 대응'을 주제로 주제 발표, 조별 토의, 성경공부, 워크숍, 조별 보고 등이 이어졌다. 조나단 봉크, 크리스토퍼 라이트, 넬슨 제닝스 등 세계적 신학자 및 목회자, 선교사, 교수 70여 명이 참석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사람들

작은예수로 변화되는 청년들

담대한 증인, 전도와 중보기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

작은 예수로 변화되는 청년들을 만났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풍성해진 전도와 중보기도’, ‘커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변화를 설명한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잊지 못할 ‘은혜 꾸러미’를 풀어놓았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이제는 자매(하늘대학부)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노방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기도하는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덕분에 2023년 대학청년부 크리스마스 블레싱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우 형제(하늘대학부)는 무너졌던 기도 생활을 회복했다. 특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됐다.

“얼마 전부터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무너진 기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특수를 하는 SNS청년부(왼쪽),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오른쪽).



도 생활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무척 기다려집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싶습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끝나도 기도하는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김진수 자매(SNS청년부)는 기도제목이 달라졌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제목이 감사제목으로 바뀌었다.

“하나님께 가족 구원을 이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제목이 감사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것도, 제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만나 주실 것을 담대하게 믿고 선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김찬숙 자매(여호수아청년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기도도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 위주로 기도했었는데,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중보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동역자들의 기도제목을 기록하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할수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감사

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공동체와 가족,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김영범 형제(여호수아청년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

“그동안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제 생각대로 살았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일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성령님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목회칼럼



박근범 목사
(예배본부, 김포공동체)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신앙적 유산 하나를 소개하라고 하면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 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라는 게 으뜸 아닐까? ‘한국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기도는 한국 교회를 이끌어 온 중요한 요소다. 미국 장로교(PCUSA) 예배예식서에 ‘통성기도’가 발음 그대로 고유명사(Tongsung Kido)로 언급되고, 한국식 기도(Korean Style Prayer)라고 소개되는 점만 봐도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의 특징이자 귀한 신앙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열정적인 기도의 물결이 한국 기독교 초

기 선교사 또는 목회자들의 권면과 지도로 형성된 움직임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도들의 자발적인 열망으로부터 일어난 현상이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욕망과 열망을 가지고 모여든 곳이 기도의 자리였고,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새벽기도다.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는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국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나 무속신앙에서 형성된 기복신앙적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게 새벽기도의 시작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자발적으로 시작됐다고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

1898년 황해도 한 교회 사경회에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 한 감리교 선교사의 부인은 알람시계가 울리듯 새벽마다 여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대화 나누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야 했다고 한다. 사경회마다 새벽

에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었고, 학자들은 이 모임들의 연장선에서 평양대부흥이 일어났다고 평가한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열정이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었다.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신석구 목사는 나라를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1운동에 동참했고, 전국적으로 회개 기도와 영적 갱신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가정과 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무절제한 사치는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매일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있던 사람이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도둑질한 사람이 그 물건을 다시 가져다주는 일들이 일어났다.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밝히려 하기 시작했다.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회는 성도의 개인적 욕망보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추구하고, 나라와 민족의 암울한 시대적 현실을 바라보며,

목 놓아 부르짖던 자리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에 세속 종교들이 도를 깨우치기 위해 반복하던 개인적 수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 교회가 민족적인 위기 상황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도 위대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이루어 내는 데 성도들의 자발적인 새벽기도회가 기여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시대적이고, 영적인 위기 앞에서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귀한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참여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나올 것인지를 스스로 질문하며 돌아봐야 한다. 오늘까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기도로 지켜온 무명의 신실한 성도들처럼 의무감보다 자원함으로,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마 6:33).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 12월 23일 토요일

환란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7~12

이승민 목사

오늘 본문은 동행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동행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 ‘보여주려는 것입니다’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능력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말씀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질그릇은 약하고, 불품없고, 결함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질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릇이 화려하면 내용물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배는 예수님입니

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드러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것은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라고 말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나를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능력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 동행은 잘 당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당해야 합니까?’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질그릇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신이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환란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짓누르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풀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면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립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 비난, 모욕, 모함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잘 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당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

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에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행은 잘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꺾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찾아옵니다.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잘 죽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잘 죽는 것은 또한 ‘사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 아내, 남편, 아들, 딸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동행은 ‘보단죽’입니다. 잘 보여주고, 잘 당하고, 잘 죽는 것입니다.

◆ 12월 25일 월요일

Why Christmas?

〈요한일서〉 4:7~12

이기훈 목사

이번 주 새벽기도회 주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히 (세상을) 거절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떻게 성탄절을 이해하고 지켜야 합니까? ‘Why Christmas?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의 답을 사도 요한의 메시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프로젝트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구원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는 헌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이유로든 메말라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신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할 일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11절)”라는 말씀 속에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사랑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탄절에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관계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해 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공감해 주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관계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더는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 어그러짐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관계 회복을 시작하는 2023년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 12월 26일 화요일

폭풍 속에서 만난 예수님

〈마가복음〉 4:35~41

조호영 목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떠납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광풍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하십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를 잡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

해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믿음의 성장은 거친 풍랑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풍랑처럼 찾아올 때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나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이렇게 나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폭풍은 위기가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사망 가운데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둘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늘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폭풍을 잡잡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두려움이 멈출 줄 믿습니다. 41절에서 제자들의 두려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파랏던 분이 이렇게 크신 분이었구나’ 하며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입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주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히 (세상을) 거절함’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세상을 거절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무기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매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매일 두렵게 만들고, 걱정과 염려 속으로 이끄는 마귀에게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더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 12월 27일 수요일

동행을 위하여 거절해야 하는 것들

〈갈라디아서〉 2:15~21

최성민 목사

이 시대에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모두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거절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16절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매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왜 베드로가 당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

었습니까? 세상과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타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기에 더는 세상의 상대적 가치에 얽매어 두려워하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평가하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당당하고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의 자존감과 당당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받는 자의 당당함으로 세상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사단이 주는 두려움의 멍에를 거절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이 자주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인정받으려 하는 모습을 지적합니다(17~19절).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자주 율법을 내세우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는 느낌을 받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에 따른 자기 증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감격하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동행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용

서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육신의 욕망을 거절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20절). 육신의 욕망은 결국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동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욕망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노예로 만들었던 육신의 욕망을 떠나보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로 인하여 예수 바보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28일 목요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요한복음〉 13:15

이기복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성품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맞아 최후의 만찬이 될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무조건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이유는 그분이 행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3년 반 동안 쉬운 삶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안함과 안전함을 모두 거절하

는 삶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계시려고 스스로 높은 자리를 거절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거절한 이유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에 세상에서 직면해야 하는 고통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부활의 증거로 고난의 아픔과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증거입니다. 집단의 이기심, 거대한 야망, 세속화된 성공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온전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했고,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겼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아픔의 흔적이 세상에 보여줄 진정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야 할까요? 조경희 목사님의 저서 〈인생 선물〉에서는 “내 고난은 남의 고난을 돕게 하고, 내 슬픔은 남의 슬픔을 품게 하고, 내 장애는 남의 장애를 배려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본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유혹을 담대히 거절하고, 예수님을 영원히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 12월 29일 금요일

붙잡힐 각오, 죽을 각오

〈사도행전〉 21:7~14

신동식 목사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자들, 형제들, 동료들, 주변 환경이 모두 반대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바울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담대히 거절하게 하소서’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갑

니다. 하나님을 위해 담대하게 거절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나 중심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믿음 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위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동행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절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실 때 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둘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담대하게 거절하게 하소서’입니다. 11절을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여매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라고 합니다. 이 예언 때문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면서 바울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이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24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고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

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고난을 결심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담대한 믿음의 거절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깨끗해지기를 결심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결심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반드시 임케 해 주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심하십시오. 붙잡힐 각오, 죽을 각오, 담대한 거절함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작은 결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해 담대히 거절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담대히 거절하십시오.



맛있는 말씀 해설

“...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골 1:4~5)

‘저 모임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가? 웃는 얼굴이 행복해 보이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공동체, 서로에게 의미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모임의 이유가 되는 공동체에서 함께 복음을 듣고, 서로의 삶을 나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역 사회에 나누는 일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골로새교회는 모범이 되는 공동체였다. <골로새서> 1장 4-5절에서도 공동체에 퍼져있는 사랑의 향기로운 소문에 대해서 말하듯이 함께하고 싶은 교회 공동체였다.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골로새교회의 목사 격인 ‘에바브라’의 의미가 ‘매력 있는’ 뜻이었어졌을까? 골로새교회는 매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 소식은 저 멀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도 전해졌다. 하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사는 골로새교회,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

하는 골로새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매우 기쁜 일이었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여러 옥중 서신을 쓰면서 골로새교회에도 편지를 썼다. 그는 골로새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와 함께 있으면서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바울은 따로 골로새 지역을 방문하거나 찾아가

하지 않았다. 골로새 지역에 다양한 문화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골로새 지역은 튀르키예의 항구인 에베소 동쪽에 있었다. 그리스의 헬레니즘과 유대의 헤브라이즘이 교차하는 지역이었다. 교회가 형성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스도 외에는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그들의 문제에 바울의 대답이 명쾌하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로운 비밀들로 모든 것을 설명한다. 율법주의도, 금욕주의도, 물질주의도, 영지주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가진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 이야기가 논쟁과 서로 다름으로 훼손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골로새교회 이야기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예배하고, 서로 나누고, 돌보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섬김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모

범이 되기를 소망한다.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를 보고 ‘나도 저기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가꿔야 한다.



김성욱 목사
(강동온누리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나누고, 돌보는 은혜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두란노서원에서 강론했고, 그러던 중에 골로새 출신 청년 에바브라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에바브라는 자신이 들은 복음에 감명을 받아 바울에게 자문을 얻어가면서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

최초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바울에게 배웠지만 에바브라의 목회는 교리적으로 그리 탄탄

달랐다. 바울이 골로새에 권하는 메시지에는 그 모든 게 반영되어 있었다. 그들은 헤브라이즘의 뿌리 깊은 율법주의 논쟁, 천사에 대한 논쟁, 헬레니즘에서 말하는 이원론적인 가치관 속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지주의’ 의식이 있었고, 에베소의 물질적 풍요로부터 영향을 받아 ‘물질 중심주의’ 도 있었다.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월 1~7일
<마가복음> 1:1~3:19



신 행적과 교훈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요한이 잡힌 이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다. 갈릴리에서 시몬(베드로)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셨다. 말씀을 들은 무리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며 놀란다.

묵상포인트 2: 예수님은 육적 치유보다 영적 치유를 먼저 행하신다. 영원의 관점에서 질병의 치유보다 죄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기

묵상포인트1:

<마가복음>의 첫 구절이 복음의 핵심을 선명하게 소개한다. 복음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

기 때문이다. 낡은 옷에 새 조각을 기우면 옷이 더 해어지듯, 율법과 복음은 양립할 수 없다. 예수님은 낡은 관습과 편협한 생각들을 파하시고, 은혜의 복음 시대를 여신다. 의인이 아닌 죄인의 구주, 참자유를 주는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묵상하자.

▶예수님은 이른 새벽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러고는 온 갈릴리를 다니며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가버나움에서 네 사람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달아 내렸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 죄 용서를 선언하시자, 서기관들이 이를 신성 모독으로 여긴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리시고 중풍병자에게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명하신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니 서기관들이 비난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선언하시며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는 사람이 없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묵상포인트 3: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침례하게 맞서신 일 중 하나는 안식일 준수에 관해서다. 예수님은 이 일로 율법의 참된 정신을 가르치신다. 예수님은 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열두 명의 제자를 구별해 그들과 3년 동안 함께하셨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자 안식일을 범했다며 바리새인들이 정죄한다. 예수님은 다윗을 예로 드시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음을 보이신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인근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나오고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외친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셔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신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도록 힘쓰자.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나의 일과는 어떠한지 돌아보고,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먼저 구별하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병자를 예수님 앞에까지 달아 내리는 수고를 했다. 한 영혼을 돕기 위해 내가 적극적으로 시행할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적용하자. ▶관습과 형식을 타파하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수용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자.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하되 본질을 사수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주시기를 간구하자. ▶우리는 모두 복음을 위한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이선규 권사님을 위해서!

이선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이선규 권사님은 오랫동안 안산M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복수가 차서 입원하셨습니다. 치료받고 퇴원하셨다가 다시 복수가 차서 입원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선규 권사님은 체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건강이 더욱 악화해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두려운 마음과 아픈 몸을 꼭 안아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이선규 권사님이 입원해 계시면서 하나님께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왜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나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병원에 있는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선규 권사님이 병원에서 카카오톡에 짧은 글을 남기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이선규 권사님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은 글을 모아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규 권사님의 글이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선물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선규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평안이 가득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이선규 권사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노규석 목사(안산M센터)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멘토가 멘티에게

선교를 준비하는 세 가지 방법

“선교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할까요? 선교지에 가기 전에 부담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선교란 무엇일까? 평신도가 생각하는 선교의 정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긴 시간 비행을 마다하지 않고 만나러 가는 것이다. 그러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건 기쁘지만 휴가를 내야 하고, 항공료도 준비해야 한다. 요즘같이 전염병과 전쟁 등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더욱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어쩌면 당연한 마음이다. 그래서 더욱 귀하다. 부담을 느끼는데도 사랑하는 그들을 만나러 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 선교를 떠나려는 청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싶다.

첫째, ‘프론티어’를 사모하라. 프론티어란 최전방을 의미한다. 핏박이 있는 곳, 거리가 멀고 문화적 장벽이 크고, 선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곳이다. 찾는 이가 적은 그곳을 사모하고, 도전하기를 바란다. 내가 병원을 개원하기 전에 1년 정도 섬기고자 선교지를

추천받았다. 한 곳은 우즈베키스탄의 치과병원이었고, 다른 한 곳은 시베리아 사하공화국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은 당시 어느 정도 선교사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시베리아 사하공화국의 야쿠츠크는 목사님 한 가정 외에 공식적으로 한국인 선교사가 없던 지역이었다. 더 개척 지역이라 생각된 시베리아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7개월 동안 학원을 다니며 러

던 여름 사역,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망아지 생고기를 함께 먹으며 서툰 러시아어로 답소를 나눴던 시간이 내게 감사한 선교적 자산으로 남아있다.

둘째, 선교지 언어를 공부하라. 예를 들어 베트남으로 아웃리치를 간다면, 3~4개월 전쯤 기초문법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이다. 어학 플랫폼에서 베트남 선생님과 영상으로 공부한

셋째,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한 선교사님께 안부전화를 드렸는데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올해는 선교지에 꼭 방문하라”는 단호한 권면이 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당시 현지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귀국이 불허되던 시기였다. 어려운 상황에 잠시 망설였지만,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촌을 방문지역으로 정하고 의약품을 들고 가서 사역했다.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 마지막 프론티어가 시리아 난민과 레반트 지역을 섬기는 일임을 깨닫게 하셨다. 올해 레바논에 다시 방문했을 때 그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셨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프론티어를 사모하고, 선교지 언어를 공부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는 행동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헌신하는 청년들을 축복한다.



양윤석 멘토
(허브대학부)

“첫째, ‘프론티어’를 사모하라
둘째, 선교지 언어를 공부하라
셋째, 이제는 행동하라”

시아어를 공부했다. 2000년 1월, 현지 상인과 함께 그 땅을 밟았다. 현지 사정으로 1년 머무는 것이 미뤄졌지만, 그 이후 헌신자들과 팀을 이뤄 4년 동안 매년 방문했다. 팀원 중 한 부부가 선교사로 현지에 안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시베리아 혹한의 겨울밤 길을 잃었던 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던 긴장된 순간들, 아쉬웠던 시행착오들, 모기떼와의 전쟁이었

다면 현지의 정확한 발음으로 배울 수 있다. 베트남에 예배팀의 도움을 받아서 전도지의 발음을 녹음해 오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아웃리치 기도모임과 공연 준비 등 바쁜 일정이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도전해야 한다.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흔들리는 눈동자를 느껴보기를 바란다. 궁극적 선교는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조망수용능력’을 키워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과 감정, 행동 의도 등을 이해하고, 추론하며, 수용하는 자질을 ‘조망수용능력’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살아왔던 어린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이 자신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조망수용능력’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발달시켜야 하는 능력인데, 결혼 관계에서는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자질이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빈약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과 직면하기 때문이다.

부부의 갈등이 증가하는 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문제다. 부부 관계에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크고 작은 갈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갈등의 빈도와 정도가 더욱 강화된다. 배우자의 입장에 서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게 된다. 건강한 부부 관계는 배우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수용하기 어렵다면 부부의 갈등이 빈번해진다.

부부 갈등이 결혼생활에서 힘겨루기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힘겨루기는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 결코 양보하려 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기적인 모습과 덜 성숙한 모습으로 배우자와 끝까지 가보겠다는 모습으로 힘겨루

기를 하기도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조망수용능력’이 부족하면 힘겨루기 모습이 자주 나타날 수 있다. 부부는 결혼생활에서 의식적으로 배우자의 입장에 서보는 인지적인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나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데 배우자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고, 물어보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갈등 양상이 힘겨루기로 나타나서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된다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부부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기고 지는 것에만 몰두하는 미성숙하고, 극단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부부가 함께 관계를 돌아보며 성장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만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하며,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힘겨루기 태도를 보였다면 배우자의 편에서 보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배우자의 입장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을 때 갈등이 분노가 되어 부부 관계를 집어삼키게 된다. 분노는 부부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 놓은 친밀한 결혼이라는 집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다. 분노에너지는 축적되는 특징이 있고, 한순간 발화하기도 한다. 부부 싸움에서 공격 무기가 되기도 한다. 매 순간 분노가 부정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 긍정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부

는 같은 생각과 의견을 갖지 않을 수 있다. 각자 생각과 의견, 주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면 갈등이 분노와 함께 증폭될 수 있다. 분노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지 생각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자신이 손해 보는 것 같고, 때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관점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고, 배우자의 말과 생각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의 생각과 의견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에 대화하면서 조율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자신의 입장만 고수한다면 상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배우자의 생각과 의도,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부족했던 능력을 키워간다면 부부는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키워갈 때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남녀가 결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조건 없는 이해와 지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특히 배우자의 지지와 이해, 수용을 받게 된다면 삶의 만족도,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부부는 배우자의 생각과 의견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건강한 부부는 한 편의 생각과 의견에 종속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자신의 의견과 생각, 필요를 적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부부는 같지만, 많은 부분에서 다를 수 있다. 다름에도 하나를 이뤄가는 게 결혼의 신비로운 모습이다. 인격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나와 다른 타인을 수용하는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부부 관계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부부가 서로 다름이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수용하게 될 때 경쟁적인 갈등 구도를 만들지 않고, 상생할 수 있다. 배우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인식의 전환과 노력이 빈약할 때 갈등이 경쟁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나의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에 서보려고 노력하면 갈등이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앎과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 얼마나 배우자의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도 중요하고, 자신과 다른 배우자의 생각과 관점도 중요하다. 이것을 수용하는 부부가 돼야 한다. 서로 다른 점을 가진 부부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2023 온누리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콘서트 ‘The gift’, 크리스마스 블레싱



사진은 지난 12월 25일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성탄절 콘서트 ‘The gift’

2023 온누리의 크리스마스는 풍성했다. 지난 12월 24일(일)과 25일(월) 국내 온누리교회 11개 캠퍼스 본당에서 성탄절 콘서트 ‘The gift’가 막 올랐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는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성탄절 콘서트’와 ‘성도들을 위한 성탄절 콘서트’가 열렸다.

성탄절 콘서트 ‘The gift’에서 이재훈 위임목사는 “꼭 필요한 선물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을 해결 받는 것”이라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연 성도(양재온누리교회)는 “성탄절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은 것 같았다”면서 “예수님 탄생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예수 탄생의 기쁨과 감격을 온 누

리와 함께 나누는 행사도 이어졌다. 2023 대학청년부 ‘크리스마스 블레싱’에는 11개 공동체 104개 팀이 참가했다. 전국 지역교회 및 쪽방촌, 다문화센터 등지에서 성탄예배, 어린이사역, 전도사역, 문화공연, 선물 나눔, 블레싱 등을 했다.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온라인 전시회’는 연말(31일)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제작한 ‘2023 크리스마스 카드’를 온누리교회 SNS에 전시한다. / 홍하영, 김다예, 김예은 기자

CGN, ‘윙페더 사가’ 우리말 더빙 영상 공개

기독교 OTT ‘풍당’, CGN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CGN이 초대형 판타지 애니메이션 ‘윙페더 사가’ 우리말 더빙 영상을 지난 12월 25일(월)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기독교 OTT ‘풍당’, CGN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윙페더 사가’ 1편을 시청하고 시청 인증과 함께 개인 SNS에 해시태그(#풍당, #윙페더사가)와 함께 감상평을 남기

면 ‘윙페더 사가’ 도서 1권과 지도, 가이드북을 준다. ‘윙페더 사가’ 1편의 리리 또는 아르머린 노래 중 한 개를 따라부르고 개인 SNS에 업로드한 링크를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윙페더 사가’ 도서 전권, 퍼즐, 텀블러, 너깃 인형 등을 증정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이웃 7,492명에게 사랑을!

2023 엔젤트리 사연 100% 연결

‘2023 엔젤트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엔젤트리에는 이웃 7,492명의 사연이 접수됐다. 한부모 가정에 난방용품, 쪽방촌에 사는 형제에게 운동화를, 지적장애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에게 내복을 선물해달라는 등의 사연이 도착했다. 사연을 전달받은 온누리교회 성도들

이 지난 12월 20일(수) 100% 연결을 완료했다.

한 재소자는 “엔젤트리 덕분에 20여 년 만에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었다”면서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을 전달해 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홍하영 기자

청년 선교사 ‘FA 22기’ 참가자 모집

1월 19일까지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청년 선교사 ‘FA 22기’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 1년 이상, 대학 공동체 6개월 이상 소속, 35세 이하 미혼(1988년생 이상), 세례교인 등이다.

청년 선교사 ‘FA 22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1월 19일까지 모든 구비 서류를 이메일(fa@timor.kr)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허입신청서 1부, 추천서 3부(온누리

교회 목회자, 공동체 리더, 지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검진서 등이다. 허입신청서와 추천서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 홈페이지(www.tim.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FA 22기는 2024년 2월 5일부터 4주 동안 국내 합숙 훈련을 시작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인도, 레바논, 캄보디아 등지에서 사역한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떡국 떡 판매

12월 3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에서 12월 31일(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천만광장에서 떡국 떡을 판매한다. 판매 수익금은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등을 섬기는 농어촌교회를 지원하고, 농어

촌미자립교회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사용한다.

서빙고와 양재 농어촌선교팀에서는 함께 섬길 팀원도 모집한다.

문의: 02-3215-3434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재정특강

2월 24일 오후 1시 30분 두란노서원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재정특강을 개최한다. 2월 24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두란노서원 1층 블레싱홀에서 열린다. 결혼예비학교 수료자 및 재정 점검을 원하는 부부가 대상이다. 회비는 4

만 5천 원. 2월 16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크리스천 가정의 재무관리’, ‘개인별 재무원칙 및 경제관 확인하기’ 등을 주제로 김의수 센터장이 강의한다.

문의: 02-2078-3263

두란노 QT세미나 ‘굿모닝 갓’

두란노서원 QT세미나 ‘굿모닝 갓’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4년 1월 15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열린다. 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www.duranno.com/seminar)에서 하면 된다. 수강료는 3만원. 문의: 02-2078-3252

130기 두란노어머니학교 171기 두란노아버지학교

두란노어머니학교가 1월 9일부터 1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

두란노아버지학교는 1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열린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버지학교 홈페이지(www.father.or.kr)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문의: 두란노어머니학교
(02-2182-9114)
두란노아버지학교
(02-2182-9100)

사진전 ‘레바논의 눈망울’

1월 31일까지 양재온누리교회 원형카페

양재온누리교회에서 ‘레바논의 눈망울’을 주제로 아주 특별한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박태성 집사가 지난 8월 레바논 아이들에서 만난 난민촌 아이들을 렌즈에 담았다. 박태성 집사는 “레바논에서 만난 아이들이 밝디밝게 웃는 모습이 가슴에 박혔다”면서 “그 눈망울에서 희망을 발견했는데, 그 희망을 온누

리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사진전의 의미를 설명했다.

사진전 ‘레바논의 눈망울’은 오는 1월 31일(수)까지 이어진다. 레바논 난민 어린이를 위한 후원도 가능하다. 온누리교회 지정계좌로 입금하거나 사진집을 구매하면 된다.

/ 김현준 기자



이웃사랑팀, ‘사랑의 상자’ 전달

이웃 110명에게 방한용품과 생필품 전달

서빙고 이웃사랑팀이 지난 12월 24일 서빙고동과 보광동에 사는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들 110명에게 ‘사랑의 상자’를 전달했다. 사랑의 상자에는 방한용품과 생필품(박스당 4만 원) 등이 들어있었다.

이은정 집사(한강공동체)는 “사랑의 상자와 더불어 예수님 탄생의 기

쁜 소식과 복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19일(화)에는 ‘이웃사랑송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웃사랑팀 봉사자들과 이웃사랑팀이 섬기는 이웃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찬양, 기도, 이기훈 목사 특송, 나눔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258기 결혼예비학교

258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열린다.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30만 원.

258기 결혼예비학교에서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의 성경적 가르침’, ‘너와 나, 다름의 축복’, ‘신혼, 재정의 첫걸음’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078-3263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Why Mission? 수료 간증



/ 김영삼 안수집사(강남B공동체)

올해 가장 의미 있는 일 두 가지를 말하라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아웃리치를 다녀온 것이고, 두 번째는 ‘Why Mission?’ 과정을 수료한 것이다. ‘Why Mission?’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선교의 의미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코트 디부아르 선교사님과 만나고, 양화진과 화성 M센터 방문하면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특히 화성M센터 방문은 내 삶을 일깨워 주는 자리였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사건이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뽀뽀 머리 학생이었던 나는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학생으로서 공부에 전념하라는 것이었다. 입시 전 마지막 겨울방학에 공부 잘하는 친구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길을 떠났다. 담요 한 장, <수학의 정석>, <성문종합영어책> 두 권을 들고, 용산버스터미널에서 아무 버스를 탔다. 종점에 내려 두 달만 묵을 수 있는 빈집을 임대해서 책상도 없이 이불을 깔고 누워서 공부만 했다. 공부하는 중에 그 동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세 명을 우연히 알게 됐다. 그

모두 하나님의 계획!

여학생 3명에게 과외를 해주면서 생활비를 벌었다. 그 학생들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두 명이 여호와 증인이었다. 여호와증인 왕국회관에 가서 그 사람들과 성경 논쟁을 했던 기억도 난다.

화성M센터에 방문한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45년 전 아무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려왔던 바로 그 거리였기 때문이다. 그때 공부했던 곳이 화성M센터 근처라는 것을 45년 만에 알게 되었다.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그때가 생각났고, 4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관여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는지 등 지나간 삶을 돌아보게 하셨다.

여호와증인왕국회관이 있던 시골 마을은 이제 이주민들이 모이는 희망의 땅으로 바뀌고 있다. 화성M센터가 이주민 사역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우연히 되는 일이 없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다. 앞으로 선교적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료 간증



/ 이성은 성도(구로A공동체)

옆집, 뒷집, 아랫집은 조용한데 우리 집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직장 생활에 쫓겨 사는 엄마를 위해 족욕을 해주던 착한 중학생 아들이 게임에 빠졌다. 아들의 반항과 불순종이 일상이 되었고, 아들과 싸움이 잦아지면서 급기야 부부싸움으로 번졌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그 무렵, 일대일제자양육을 해주셨던 양육자님의 권유로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에 등록했다.

하가훈 첫날 출발 두 시간 전에 갑작스러운 복통과 현기증, 식은땀, 이명 등 온갖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 순간 “하나님! 응급실이 아니라 하가훈에 가게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이 급하게 사 온 약을 먹고 누워있었더니 조금씩 회복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하가훈 첫날 약속 시각보다 늦게 도착했다. 그곳에서 섬기는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놔주시고, 권사님 두 분과 양육자님이 함께 기도해주셨다. 그분들의 기도를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다. 동시에 ‘사탄이 우리 가정의 바로 서는 것을 싫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에 감자기 오기가 생겨 ‘이번

가정, 순종의 첫 걸음!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다짐했다.

주사와 기도 덕분에 이튿날부터 밥도 잘 먹고, 강의도 잘 들을 수 있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부부는 서로 다름에 매력을 느껴 결혼하는데 왜 그 다음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게 될까?’, ‘남의 자식을 볼 땐 생각의 여유가 생기는데 왜 내 자식에게는 조금해지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온전한 가정으로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드셨을까?’ 등 수많은 질문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강의 화면에 적혀 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혔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도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 뜻대로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고난의 길, 배우자와 나의 다름을 통해 내가 깎이는 길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고, 가정을 세우는 길임을 배웠다. 세상이 ‘나 중심’의 코드를 심어놓고 끌고 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첫걸음이 가정이다. 가정은 자기 부인과 타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체합학습이다.

유아세례 간증



/ 유아: 이하늬, 이하건 부: 이승원 모:김송학

유아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부는 힘들고, 어렵게 자녀를 얻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드리고, 열심히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다. 2019년 1월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교회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자녀를 우리 부부에게 주셨다. 우리 부부는 교회 주차장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첫째 아이가 지금 다섯 살이고,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더 주셔서 둘째 아이가 벌써 세 살이다. 두 아이를 열심히 양육했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영아2부 예배에 참석했다. 이제 율동도 곧잘 따라 하고, 기도하는 방법도 알아가고 있다. 아이들에게도 교회가 어느덧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매주 교회 선생님들을 찾고, 자신을 무한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3년 휴직 기간 동안 바쁘게 살았는데, 복직

하나님 역사가 살아 움직인다!

시기가 돌아왔다. 회사와 집이 멀어지면 아이들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릴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 제가 일찍 나가고, 늦게 오는 엄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발령받을 지역을 위해 기도했다. 발령지를 걱정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눈앞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명의 지도가 아른거렸다. 신기한 마음에 눈을 떠서 검색을 해봤더니 발령지와 가까운 지역이었다. 다음날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로 발령 나면 좋겠다”고 했다.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10일 뒤 꿈에 나온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로 정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서 눈물이 쏟아졌다. 하나님은 그동안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인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힘들고 아픈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성장시켜 주셨다. 앞으로 펼쳐질 우리 가족의 미래도 하나님 계획안에서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232기 순장학교 수료 간증



/ 오지선 성도(S브릿지공동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뜨겁고 고통스러운 불을 통과한 적이 있었다. 10년 전 건강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잃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직장을 잃고 재정도 무너졌다. 잘나가던 관계가 모조리 단절되었고, 가족들에게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사랑하던 여자친구도 떠났다. 삶에 소망이 없었다. 플랫폼에 들어오는 전철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죽기에는 역을했다. 나름대로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자부했기 때문이다. 그 고통의 이유를 알고자 3년 동안 미친 듯이 책을 읽었다. 그리고 결론을 얻었다.

‘내가 성경을 안 읽어 봤구나.’ 친구를 따라간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친 내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에서 처음으로 ‘기쁨’을 배웠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나에게서는 축복이었다. 그 기간 홀로 매일 성경을 읽었고, 기도와 여러 훈련으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셨기 때문이다.

진정한 기쁨으로 사는 순장

정든 교회를 떠나 온누리교회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S브릿지공동체에 온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하나님이 내 삶에 금처럼 귀한 퇴직금을 남겨주셨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힘이다. 지금은 쾌락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 중독 시대다. 중독은 몸과 뇌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사회를 망가뜨린다. 중독을 이겨 낼 유일한 힘은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얻는 ‘기쁨’이다.

이번 순장학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비전을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또 순원을 목양하는 순장으로서 균형 잡힌 마음가짐과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 안에 속한 영혼으로서, 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순장으로서 영육을 재정비하는 준비를 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순장 되기를 기도한다. 기쁨이 차고 넘쳐서 내게 맡겨주신 순원들에게 흐르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우기를 소망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본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주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온누리선교재단 자산관리 경력직 채용
업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업무
형태: 정규직 사원(주 44시간 근무)
자격: 부동산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부동산 거래 및 관련 법규, 세무, 부동산개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CMN 라파티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3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티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수요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ú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어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중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라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통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조직신학
접수: 2024년 2월 1일~15일 15:00까지
문의: 02-570-7192
*홈페이지(www.ttgu.ac.kr)에서 초빙공고 참조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1부 9:00, 영어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막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막도세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4층 영어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40 사랑홀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이승언 상영
조요셉 흥현

2024년 1월 6-7일, 13-14일 선교헌금작정

온누리의 새해, 선교와 함께 시작합니다.



선교헌금 작성 방법

- 현장 작성 (2024년 1월 6-7일, 13-14일) :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의 주일예배 시 작성서 작성
- 온라인 작성 (상시 작성 가능) :
선교헌금작성 QR코드

온라인 작성
- 전화 작성 (상시 작성 가능) 02-3215-3616
※ QR코드와 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선교헌금 작성서 작성 방법

※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해 주세요.

- 자동이체 (CMS) :
 - 소속캠퍼스,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작성
 - 처음 작성하시는 분은 <신규 작성란> 작성
 - 이미 작성하고 계신 분은 자동연장되며, 변경사항 있으신 분은 <변경 작성란>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 표시
- 헌금봉투 방식 :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금액 작성
 - 헌금봉투 수령 캠퍼스 선택

☎ 선교헌금 문의 02)3215-3616